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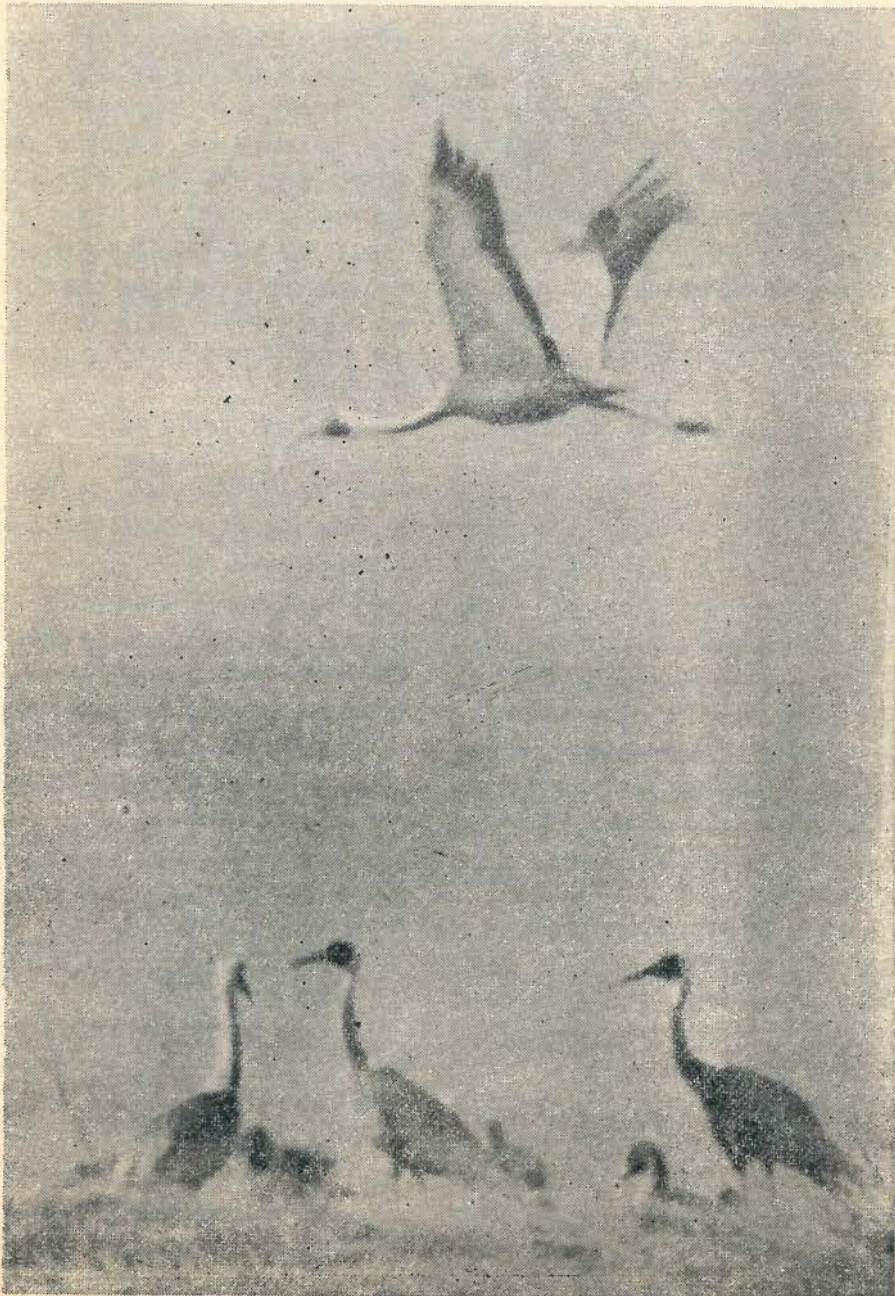
# 자연보존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제 7 호 1975. 3.

韓國自然保存協會 發行



<表紙說明>

재두루미 (*Grus vipio*)

李 正 雨

재두루미(White-naped Crane)는 우아한 풍채와 잿빛 채색의 기품 넘치는 아름다운 새로서 옛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吉鳥라 하여 신성시 되어 왔다.

1968년 5월 30일자로 재두루미 중 자체가 천연기념물 203호로 지정된 이래 전국의 곳곳에서 간간히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집단은 기십마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1973년 11월말 한강하류(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산남리)에서 316마리의 대 집단을 관찰하였고, 1974년 12월에는 國際재두루미 保護財團理事長인 G. W. Archibald 박사와 필자등에 의하여 다시 인근지역인 교하면 문발리에서 1,507마리의 대 군집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최대의 집단이었으므로 관계 학계의 큰 관심을 모은바 있으며, 문화재관리국은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지역은 한강하류의 사구가 형성된 초지로서 재두루미의 먹이가 되는 사초 군락이 무성한 곳인데 지역이 광활하여 안심하고 섭생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휴전선 인접지역이므로 사람의 출입이 적어 이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좋은 곳이다.

재두루미는 시베리아 동부지역에서 번식하며 11월에 남하하여 우리나라에 머물며 사는 겨울 철새이나 채식지가 모두 결빙되는 1월에는 일본으로 대다수 이동하며 다시 2월말경 북상길에 한강하류에서 머물다 3월에 시베리아로 떠난다. 그러므로 세계적 분포지역도 시베리아에서 중국대륙으로 직접가는 집단외는 만주, 일본등 국한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통상 해안 늪지대 강하구등 개활지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주로 식물성 먹이를 섭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초과식물(현지 주민들은 모대풀이라고도함)의 구근을 즐겨먹으며 집단을 이루면서도 가족단위(어미새와 새끼)로 「테레토리」를 갖는다.

번식은 4월부터 동우리를 짓기시작하여 5월에 번식하는데 동우리는 지상의 조금 높은곳을 택하여 풀잎을 모아 접시형으로 우묵하게 모아 깔고 2개를 산란하여 1~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 어린새끼는 최소한 1년 동안은 어미와 함께 이동하고 생활하며 다음해 번식기까지는 가족군으로 지내게 된다.

한강하류의 재두루미중 어린새와 어미새의 비율은 어린새가 38%나 되고 있어 현재 재두루미의 번식은 상당히 좋은 상태라는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식지에서도 철저한 지역구분이 있어 잠을 자는 Resting area, 먹이를 먹는 feeding area를 구별하는등 지역교류를 철저히 하는 특성도 재두루미만의 특성이 아닌가 한다.

먹이는 일출직전 먼동이 틀무렵 베지어 날아와 채식하는데 이때 솟갓이 긴목을 높이 쳐들며 트립뱃 소리같은 노래로서 자기의 「테레토리」를 알리는 풍요한 장면은 어쩌면 수많은 야생조류중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값진 것인 지도 모른다.

이들 전세계의 두루미종류는 첫째 번식력이 극히 약하고 둘째 몸이 커서 먹이를 많이 먹으며 셋째 서식처는 광활한 지역으로 도중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의 각별한 보호조치가 없이는 절종을 면치못할것이다.

미국이나 일본등지는 두루미류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인을 두고, 서식지를 확보하고 사료를 급여하고, 계몽활동을 펴는등 보호에 필요한 모든일을 실천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높은 관심속에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5종류의 두루미(두루미 *Grus Japonensis*, 재두루미 *Grus Vipio* 검은목두루미 *Grus jilford*, 흑두루미 *Grus monacha*, 쇠재두루미 *Anthropoides Virgo*)중 가장 숫자가 많은것이 재두루미라고 하지만 예상외의 손실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철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는 필요한 모든 행정력내지 선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얼마전 한강하류에서 재두루미의 먹이가 되는 밀로서 베풀어준 「고별성찬」을 먹은 재두루미들이 오는 겨울에도 많은 어린새를 거느리고 다시 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진 : 경향신문사 사진부  
이봉섭 기자 촬영 제공>

<論 說>

山岳人과 自然保存

曹 斗 鉉



自然景觀의 아름다움으로 東洋의 스위스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山岳地帶의 울창한 숲이 날로 황폐해져 가는 현상을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에 숲이 육어지면 풀이 자라고 풀이 있으면 여러가지 곤충이 번식하며 그러면 또 이를 잡아먹는 새들이 서식하게 마련이다. 산토끼, 다람쥐가 뛰놀고 이를 뒤쫓던 범, 여우가 울부짖던 우리의 山野는 차츰 그 生命을 잃어가고 헐벗어 가고 있다.

메마른 산은 모래와 자갈의 모퉁에 불과하고 장마철의 洪水로 國土를 파괴한다. 治山治水가 治國의 근본이라고 옛사람이 가르친 敎訓을 우리는 現時點에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愛林綠化는 바로 愛國, 愛鄉에 直結되는 것이며 山岳의 自然保存은 山岳人만이 推進할 일이 아니라 全國民이 參與해야 할 重大한 課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全國土의 3분의 2 가량은 화강암과 편암등 酸性岩石이 분해된 砂質토양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산성이 강하고 保水力이 없는 토양에는 다량의 有機成分이 보태져야만 비로소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生物이다.

生物들은 相互協助해서 살아 간다. 即,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야 풀이 자라며, 풀이 자라면 땅은 有機成分과 水分을 保有해서 나무의 뿌리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무 한 그루를 베어버리면 그 나무 들레의 풀은 말라 죽고 그곳이 끝내는 모래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愛林綠化의 노력을 전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가장 可憎스러운 행위가 바로 盜伐이다. 수백년이나 자라온 深山의 巨木들이 마구 잘리고 뽑힌 폐허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山 자체가 메말라 죽어간다. 그러나 盜伐꾼보다 더 미운 存在

가 이러한 盜伐꾼이 잘라온 나무로 짚은 바둑판이나 木刻工藝品을 사가는 몰지각한 무리이다.

그러한 전형적인 예가 太白山의 朱木의 경우이다. 朱木은 우리나라에서는 標高 1,000m 이상의 高山地帶에 自生하는 常綠針葉樹로 樹形이 아름다워 庭園樹로 種애를 받고 있으나 성장이 극히 더디어서 높이 10여 m, 지름 1m의 巨木으로 자라려면 수령이 4~500년이 되어야 한다. 나무의 껍질이 곱고 朱紅色을 띠고 있어 家具, 바둑판, 木刻工藝品의 材料로 높이 평가되며 紫檀이라고도 불리운다. 漢拏山, 雪岳山, 智異山, 德裕山 등은 國立公園으로, 小白山은 天然保護區域으로 指定되어서 이 地域에 자라고 있는 朱木은 保護를 받고 있으나 太白山은 保護의 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朱木은 씨로 번식시킬 수도 있으나 꺾꽂이가 손쉬워서 생나무의 가치를 마구 잘라서 苗木으로 키워서 파는 業者들도 많다. 서울의 고급 저택의 정원을 장식하는 朱木들이 이렇게 옮겨진 것이라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귀착될 것인지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울릉도의 수많은 특이한 植物도 비슷한 경우에 속한다 하겠다. 사실 聲人峰의 原始林은 天然記念物로 指定되어 있는데도 盜伐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雪岳山의 에델바이스(왜슴다리)는 그 이름이 말하드시 純白하고 高貴한 高山植物의 女王이다. 山岳人의 사랑을 받는다 이 꽃이 함부로 꺾이고 뽑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하물며 이것을 뽑아다 파는 商人들까지 있으니 可憎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山莊의 설치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연료로 火木을 사용치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漢拏山의 장구목, 진달래밭, 용진각, 영실등에 세워진 山莊은 폐치카로 난방토록 되어 있어 다량의 火木이 필요하며 따라서 國立公園이며 天然保護地區인데도 구상나무나 기타 여러 裸木등이 베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漢拏山에 건설된 登

山路가 鷄龍山과 마찬가지로 계단식인 것은 登山의 門外漢의 그릇된 善心の 소치라고 생각된다. 登山에서의 步行은 各自의 體格과 體力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법인데 이를 기계적으로 계단을 따라 오르게 하였으니 오�히려 登山客들에게 外面을 當하고 自然만을 망친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登山路의 建設에는 당연히 山岳人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山岳의 自然保存이 우리나라에서는 山林保護에만 置重된 느낌이 없지 않다. 높이가



2,000m에 미달한 南韓의 山岳地帶는 거의가 樹木이 자랄 수 있는 條件을 갖추고 있는 점에 基因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野生動物의 保護가 時急한 문제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왜냐 하면 山野의 황폐와 함께 멸종의 위기에 놓인 稀貴한 鳥獸가 돈에 눈이 먼 밀렵꾼들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雪岳山一帶에는 몽고, 만주, 시베리아, 북한의 높은 지대에 분포하는 寒地性, 高地性의 동물이 아직도 서식하고 있다. 산양, 사향노루, 반달곰 등이 이에 속하며 이중에서도 사향노루는 한국 특산이며 수컷의 생식기 근처에 사향주머니가 있어 약용으로 매우 高價로 거래되며 반달곰의 쓸개도 응답이라 해서 귀히 여겨지는 까닭에 밀렵꾼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다람쥐는 海外에서 人氣높은 愛玩動物로서 수십 만마리가 輸出되었고 모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韓國産품은 박제가 되어서 外國觀光客에게 수없이 팔려나갔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팔겠다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野鳥의 保護는 그대로 山林의 보호에 直結된다. 대부분의 野鳥는 雜食性이어서 많은 害虫을 驅除해준다. 그러나 野鳥들 역시 山林의 황폐와 함께 그 수가 많이 줄었고 크낙새와 같이 生態가 특이한 새는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 깊은 산골에 울리는 산새들의 노래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

화롭고 포근한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가를 생각할 때 산새의 보호는 절실한 문제라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登山人口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公害도 무시할 수가 없다. 소위 100만

이상이라는 많은 登山客이 휴일이면 山에 몰려와서 나무를 꺾고 물을 더럽히고 빈병을 깨고 먹다 남은 찌꺼기와 휴지를 마구 버리니 아름다운 山은 그대로 쓰레기터가 되는 판국이다. 觀光버스를 대절해서 수십명이 몰려다니며 계곡을 유홍장으로 망쳐버리는 따위는 결코 登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山을 사랑하는 사람, 山을 두려워 하는 사람, 山의 翫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진정한 山岳人인 것이다. 진정한 山岳人은 바위 하나, 풀포기 하나에도 애정을 느끼며 이를 애긴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쓰러진 포말을 바로 세우고 버려진 휴지를 치워서 오기 전보다 더욱 깨끗하게 하고 떠난다.

길가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만용을 진정한 산악인이라면 가질 수가 없다. 알프스의 어느 절벽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서울近郊의 어느 岩壁코오스에 알피니스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바위 틈바구니에 하켄 하나 박는 것도 조심해서 山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려는 것이 진정한 山岳人의 마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山岳은 이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소극적인 自然保存만으로는 그 황폐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법에 의한 강력한 制裁가 따라야 하겠으나 그보다도 全國民이 한사라도 빠짐없이 自然保存에 參與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府當局에 바라고 싶은 것은 山岳의 自然保存에는 專門學術分野의 의견과 함께 양식있는 山岳人의 의견도 참작되어야겠다는 점이다. 山을 사랑하고 神聖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는 山岳의 自然保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全國民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韓國山岳會理事〉

<資 料>

## 두루미 樂園의 꿈

金 憲 奎



東南亞地域에서 두루미의 2大越冬場所라면 우리나라 漢江下流(坡州郡交河面文發里)의 매자기(*Scirpus maritimus*) 草原과 日本 九州의 南端인 鹿兒島縣出水市荒崎의 平野地帶를 들 수가 있다.

漢江下流에 渡來하는 두루미는 주로 재두루미(*Grus vipio*) 1種으로 昨年 11月 國際두루미財團 理事長 조지·아치볼드博士가 來韓하여 筆者와 共同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漢江下流에서 1507마리 江華島에서 數百마리 非武裝地帶에서 數百마리 모두 約 2,000마리의 재두루미가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確認되었으며 재두루미의 繁殖地는 蒙古 東北部와 시베리아의 바이칼 湖水 南쪽이므로 우리나라에 온 재두루미는 地球上에 있는 재두루미의 全部로 推定되었었다.

昨年 12月 20日 아치볼드 博士가 九州南端에 있는 荒崎두루미 渡來地를 踏査하여 재두루미가 많이 있는 것을 確認하고 곧 東京으로 가서 山階鳥類研究所에 부탁하여 두루미 保護狀況視察이라는 名目으로 筆者를 招請하므로 2月 5日부터 9日간의 研究旅行을 可能케 하였던 것이다.

### 荒崎(아라사끼)의 두루미 棲息環境

荒崎는 九州南端인 鹿兒島縣西北海岸地帶에 位置한 洞里로 東쪽에는 矢筈山(182m) 西쪽에는 天立山·笠山(400m) 南쪽에는 紫尾山(1067m)에 둘러 있는 廣濶한 干拓地를 開墾한 平野로 野田·蛇淵·江內川등 3大 河川의 集合地이다.

平野는 野田川을 사이에 두고 두루미 保護地域(160h)과 東干拓 地帶(240h)로 나뉜다. 保護地域에는 잠자는 寢所 1.5h와 먹이를 뿌려주는 給飼場이 있다. 寢所는 市役所가 논을 買收하여 물을 넣어두는 것 뿐이다. 두루미는 물위에서 외발로 서서 머리를 날개밑에 넣고 자는 習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두루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西紀 1695年(280年前)이란 記錄이 있으나 마리數를 正確히 調査하기 시작한 것은 1927年度부터였다. 이곳에 오는 두루미와 渡來地가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것은 1921年이었고 特別天然記念物로 昇格된 것은 1954年 3月 29日이었다. 特別天然記念物은 保護管理費豫算의 折半이 政府의 補助로 充當되는 것을 意味한다.

### 年度別 두루미 渡來數

年度	흑두루미	재두루미	목검은 두루미	기타 두루미	합 계
1927	약 400	약 40	—	—	약 440
1928	약 500	약 60	—	1	약 561
1929	600	약 100	1	—	약 701
1930—35	조사 불충분		—	—	불명
1936	약 2,381	약 158	2	1	약 2,542
1937	약 2,550	약 211	2	1	약 2,764
1938	약 3,217	약 347	3	—	약 3,567
1939	약 3,435	약 467	3	1	약 3,908
1940—46	2차대전중 미조사				
1947	250	25	—	—	275
1948	300	50	—	—	350
1949	245	30	—	—	275
1950	265	28	—	—	293
1951	218	23	—	—	241
1952	243	20	—	—	263
1953	259	20	—	—	279
1954	255	22	—	—	277
1955	274	25	—	—	299
1956	318	27	—	—	345
1957	356	31	—	—	387
1958	350	34	—	—	384
1959	375	45	—	1	421
1960	376	60	1	1	438
1961	723	71	—	—	794
1962	811	96	2	—	909
1963	1,053	95	—	1	1,149



아라사끼 두루미 保護區域內的 재두루미와 흑두루미

1964	1,127	121	3	—	1,251
1965	1,442	129	2	—	1,573
1966	1,467	181	6	—	1,654
1967	1,450	221	5	1	1,677
1968	1,452	203	5	—	1,660
1969	1,562	233	3	—	1,798
1970	2,072	257	6	1	2,336
1971	2,023	287	2	1	2,313
1972	2,286	401	2	—	2,689
1973	2,793	449	2	1	3,245
1974	2,157	453	4	—	2,614
1975. 2. 7 현 재	2,300	530	4	—	2,834

합 계 3,413,000〃  
 既存施設로는 展望臺(1層은 食堂·賣店)가 있어서 望遠鏡 6臺가 備置되어 있고 病이 들거나 弱化되는 두루미를 收容保護하는 治療舍와 駐車場이 있다.

1974年度の 觀光客數는 아래와 같으며 觀光客의 展望臺入場은 無料이나 駐車料와 望遠鏡使用料를 받는다.

年 月	觀光客	버스	マイクロ버스	自家用車
1973. 11	16,647人	30臺	40臺	3,087臺
12	12,645〃	25〃	28〃	2,343〃
1974. 1	44,694〃	28〃	30〃	11,343〃
2	14,961〃	20〃	25〃	3,261〃
計	88,947〃	103〃	123〃	20,034〃

앞으로의 展望

우리나라의 漢江下流와 日本의 荒崎平野를 두루미의 樂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兩國政府와 國民들이 保護管理에 힘써야 할 것은 勿論이지만 두루미는 人類全體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全世界가 關心을 가지고 保護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世界的 많은 學者들의 激勵속에 1975年 2月 20日 天然記念物 250호로 指定되어 재두루미의 渡來地가 法的인 保護를 받게 되었고 文化財管理局에서는 재두루미가 日本에서 돌아오는 3월부터 먹이를 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計劃中이므로 이와 같은 事實이 今年 9月 3日~5日 美國에서 開催되는 國際두루미세미나에 報告되면 世界鳥類學界의 關心을 모을 것으로 期待된다.

〈本協會 理事·梨大 自然史博物館長〉

위의 集計를 보면 2次大戰中에 急激히 減少되었던 두루미 渡來數가 그 後부터는 年次的으로 增加一路에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두루미 保護管理實務者들은 한결같이 두루미 渡來數는 治安·經濟成長과 函數關係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一理가 있다고도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건너가는 재두루미의 數도 過去 10年동안에 倍加되고 있는 셈이다.

두루미의 保護管理는 出水(이즈미)市の 社會教育課의 指揮監督을 받으며 1974年度 管理 豫算은 다음과 같다.

人件費	445,000円(保護責任者 1名 助手 2名)
旅 費	13,000〃
需用費	2,675,000〃(飼料代 小 麥 約 650俵) 물고기 約 200톤)
工事費	150,000〃
負擔金	130,000〃

우리나라의 自然資源

動物編

다 람 쥐

吳 昌 泳

다람쥐는 우리나라의山野 어디를 가나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정다운 산짐승이다. 全世界에는 46屬 245種이란 엄청난 種類가 있지만(D. Morris)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것은 가장 귀엽게 생긴 다람쥐의 하나로서 愛好家들의 注目을 모으고 있다. 다람쥐만이 가지는 매우 특징적인 줄무늬와 푸집한 꼬리등 전체의 생김새와 配色이 特異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면 볼수록 하나하나의 행동이 귀엽고 재미있어 더욱 눈길을 끌게 마련이다. 다람쥐는 걸보기도 좋은만큼 살아가는 모습 또한 경탄할만한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다람쥐는 주로 낮에 활동하며 나무 타기의 명수이기도 하지만 地上生活을 좋아하여 울창한 針葉樹나 活葉樹林 또는 岩石地帶, 때로는 人家 부근에도 살고 있다. 다람쥐는 地下에 굴을 파고 各自 一生을 定住하는 데 굴의 깊이는 때로 10m에 이르며, 2개소 이상의 出入口와 몇개의 방을 마련한다. 그중 하나는 나무잎과 풀을 깔아 보금자리를 만들고 탄 방은 먹이의 저장고로 쓴다.

다람쥐의 먹이는 도토리나 밤, 과일, 곡식등 植物性이 초이지만 달팽이, 곤충 따위의 動物性도 먹어 펴 폭넓은 食性을 보인다. 다람쥐는 제자리에서 바로 먹지 않는 먹이는 뺨주머니에 5~8gm씩 넣어 굴 안으로 날라다 겨울 양식의 체비를 차린다. 뺨주머니는 양볼에 피부가 늘어서 생긴 주머니로서 입의 양쪽에 각각 따로 열린 아가리가 있다. 뺨주머니에 먹이를 넣을 때는 나무열매를 앞발로 잡고 걸의 거친 부분을 이빨로 다듬은 다음 하나하나 집어 넣는다. 양뺨의 주머니가 다 차면 얼굴은 마치 부어오른 것 같이 보이며 도토리라면 모두 8개를 넣을 수 있고 마지막 하나는 입에 물고 운반한다. 저장하는 먹이는 굳은 열매만을 택하고 결코 상하기 쉬운 과일이나 동물성은 제외된다. 이렇게 저장한 먹이는 자그마치 3~4리터나 되며 어떤 조사자는 32리터의 각종 열매를 보았다고 한다(외국의 예).

다람쥐는 9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8~10도가 되

면 굴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듬해 3월까지 겨울잠을 잔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도 때때로 잠에서 깨어나 창고의 먹이를 먹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한다면 진정한 冬眠은 아니고 半休眠 상태라할 수 있다.

3월에 동면에서 깨어난 다람쥐들은 밖으로 나와 활발히 활동하며 곧 교미한다. 수컷은 적극적으로 암컷의 굴을 방문하여 유인해 내서 교미하기도 한다. 임신 기간은 24~31일, 한 배에 2~8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1년에 두번 分娩한다. 새끼는 生後 한달동안 굴속에서 젖을 먹고 자란 다음 어미를 따라 첫 나들이를 하고 6주 후에는 어미로부터 떨어져 독립하는데 번식의 시기와 회수는 地方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다람쥐는 여우, 너구리, 매, 올빼미 등의 밥으로 희생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天敵은 뱀이다. 뱀은 안전한 굴속까지 추격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뱀보다 무서운 새로운 天敵이 최근에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람이다. 日本을 비롯한 外國 사람들의 노리갯감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外貨 획득이란 명분 아래 마구잡이가 盛行된 탓이다. 한 10여년 前에는 年間 輸出量이 무려 20~30만 마리의 실적을 보였다고 하니 실제로 희생되는 數는 아마도 그 배 이상은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外貨가 所重하다 하지만 國土의 自然資源마저 이렇게 벗겨서 팔아먹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 요즘에 와서는 다람쥐를 飼育繁殖하여 수출을 꾀하고 있다 하니 바람직한 일이지는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實効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가 기우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람쥐가 들끓어 農林產物에 대하여 多少의 피해가 있더라도 逆說的으로 그것이 곧 이 강토의 풍요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면 달라 몇분에 이 가련하고 아름다운 동물을 팔아먹는 愚를 犯해서는 안될 것으로 確信한다.

〈昌慶苑 獸醫官·本協會 서울 京畿支部運營委員〉

〈自然紹介〉

周王山(舊名 石屏山) 식물 채집기

李 德 鳳



주왕산은 경북 청송군 부등면 상의동(북위 36° 23', 동경 129°9')에 자리잡고 있는 산이다. 910m의 主峰을 비롯하여 높고 낮은 수많은 岩峰이 층암 절벽을 이루고 여러 줄기의 폭포도 쏟아져 특이한 절경을 보여 주고 있는 곳이다.

교통이 불편한 탓인지 식물학자의 발길이 드물어서 혹시 미지의 식물을 발견할 수 있거나 앎을 까 하는 호기심과 또는 뒤에 설명하게 될, 나와는 인연이 깊은 식물을 찾아보기 위하여 제자 3명과 함께 7월 22日(1958) 이른 아침에 서울역을 떠났다. 경기도의 양평, 강원도의 원주, 충북의 제천, 단양등 남한강 流域에 발달한 小邑을 거치는 동안에 치악산의 뿌아리굴, 다음 통과에 7분이나 걸리는 긴 굴, 다시 竹巔굴등 말고도 계속되는 수많은 굴을 지났다. 죽령은 小白山脈의 분수령으로서 영북의 水源은 남한강, 영남의 水源은 낙동강의

上流로 注入한다. 이 죽령을 넘어서면 경북 땅으로 풍기, 영주를 지나 낙동강 상류를 끼고 평야가 열린 곳에 안동읍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山의 나라로서 重疊한 山과 山 사이에 내가 흐르고 그 내를 따라 길이 뚫리고, 내의 장난으로, 흘러가다가 자그마한 평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자그마한 촌락, 그보다 큰 평지면 좀더 큰 촌락, 더 넓은 평야가 마련되었으면 그 大小에 따라 大小 市邑이 발달된 것을 안동까지 오는 동안에도 역력히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간의 생활이 자연환경의 조건 여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새삼스레 느꼈다. 안동에서는 퇴계선생의 도산서원을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차편이 여의치 않아 중지하고 말았다.

7월 23日(水) 일찍이 안동을 떠나 청송읍과 청운동을 거쳐 오후에 주왕산 입구 上宜洞 大典寺 앞에 당도하였다. 여관에 짐을 풀고 식사후 곧 채집에 나섰다. 여관 측대 밑으로는 한줄기 맑은 내가 흐르고 전면에는 旗岩이라고 부르는 巨大한 바위로 된 한쌍의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 있다. 냇가의 식물을 채집하면서 10리가량 들어가니 山峽이 좁아 지면서 웅장한 奇岩怪峯이 금세 무너질듯한 기세로 좌우에 치솟아 있다. 여기에 가로 놓인 다리——밑은 계곡이 깊이 패여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인다——를 건너 한 고비 돌면 또 다른 기묘한 광경이 나타난다. 이렇게 서너 고비를 돌아 奇岩이 병풍처럼 둘러 선 곳에, 길이는 짧을망정, 수없이 많은 白玉을 아낌없이 쏟아 놓는 폭포가 걸려 있다. 이것을 제 1폭포라고 부른다. 이 바위 병풍과 맑은 내와 폭포와 숲이 한데 어울려 일대 기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의 삼림은 꽤 울창하였으나, 6·25전란 당시 군의 작전상 큰 나무는 베어버렸다고 한다. 그래도 10~20년생의 수림이 울밀하고 각종 잡초도 우여저서 삼엄한 맛은 없을망정 보기 좋은 경색이다.

황혼은 짙어가고, 비는 쏟아지는 중에, 걸음을

빨리하여 돌아왔다. 늦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찍이 자리에 누으니 바로 냇가에 자리잡은 여관인 지라 물소리, 개구리의 합창, 귀뚜라미의 독주등이 밤새도록 요란하다. 쉬지않고 흐르는 냇물은 청운, 청송 땅을 지나 안동으로 구비 구비 돌아 필경 낙동강이 되어 남해로 流入한다. 다시 못을 길이 언덕 몇 천만년 흐르고 또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온 뒤라 급한 물결은 세차게 흘러 바위를 씻어내리고 모든 不淨物을 휩쓸어 바다로 흘러버린다. 인생의 일생도 다시 못을 죽엽의 彼岸을 향하여 쉬지 않고 흘러간다. 실낱 같은 인생의 流轉, 격동하는 세계사의 조류에 한 잔의 그 무엇이라도 보탬이 있을런지.....

제 3일째인 7월 24日(木)은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 비 개기를 一刻이 如三秋로 기다렸으나 그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후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비 실은 구름이 산 허리를 감싸는 雲霧中을 周王庵을 향하여 떠났다. 내를 끼고 홍자색의 부처꽃, 싸리, 적색의 참나리, 황색의 배암무, 딱지꽃들과 여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껌껌이플등 수백점의 식물을 채집하면서 5리 가량 동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꺾이어 주왕암에 당도하니 지장암, 관음봉, 미륵봉, 육녀봉, 촛대바위, 석가봉 등등 열도

넘는 기이한 봉우리와 색색으로 얼룩진 바위가 암자를 둘러싸고 병풍처럼 하늘을 제물듯이 싸 있다. 압도감을 주는 광경은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절경이다. 山山水水處處奇, 松松栢栢回回岩이라고 금강산을 읊은 갑사장이 만일 어긋의 절경을 보았던들 좀 더 절묘한 絕唱이 나왔을런지 모른다. 이곳은 제 1폭포와 더불어 주왕산 경치의 쌍벽이라고 하겠다.

주왕암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신라 말기에 당나라에서 죄를 지은 周鑊라는 자가 이 산으로 망명하여 암굴 속에 살면서 자칭 王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 石屏山이던 이곳을 周王山, 암자를 周王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산의 實景으로 보아서는 石屏山이란 이름이 가장 적합한데, 한낱 망명객을 위하여 山과 암자의 이름을 고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事大사상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되어 불쾌감이 없지 않다. 다시 名實이 相符한 石屏山으로 환원시키기가 옳지 않을까 한다.

암자 뒤 절벽의 틈을 뚫고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한참 오르니 절벽에 5~6m 가량되는 사다리를 수직으로 세워 놓았다. 멀리는 다리로 한층 한층 간신히 기어오르니 정면에 자그마한 암굴이 있다. 이곳이 그 옛날 자칭 주왕이 숨어 살던 굴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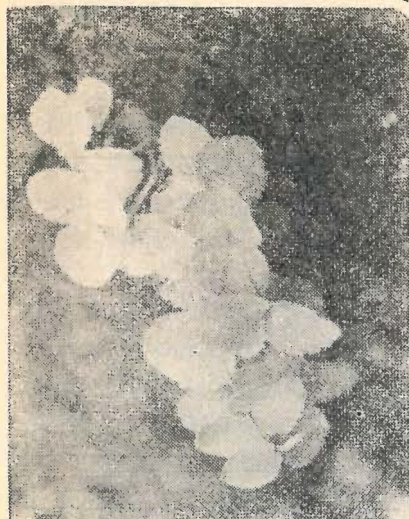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바위에 着生하는 「평의비름」의 1종을 채집하였는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산에 오게 된 동기가 실은 이 식물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평의비름속(*Sedum*) 15~6종과 비교해 보면 잎은 뚜렷하게 둥글고 對生하며 꽃차례는 집단하여 구형에 가깝고 꽃빛이 짙은 자색인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식물에 둥근잎평의비름(*Sedum rotundifolium* Lee, D.B.)이라는 학명을 붙여 新種으로 학계에 발표한 것이다(식물학회지 1권 2호 1958).

여관에서 사제 4인의 공동작업으로 3시간 동안 오늘의 소득인 500여점의 식물을 정리하여 야책으로 눌러놓고 늦게야 석반을 치렀다.

제 4일(7월 25日)은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한다. 오늘은 여관에서 15리 가량 되는 內院里까지 탐사하기로 정하고 비가 그칠 틈을 타서 9시반에 떠났다. 밤 사이에 산골 물이 불어서 K군의 주의



단비필을 펼친듯한 제 3폭포



둥근잎 평의비름  
*Sedum rotundifolium* Lee, D.B.

지 않은가. 자세히 살펴보니 망개나무(*Berberis koreana*)에 틀림 없다. 일동은 환성을 올렸다. 이 나무는 종래에 속리산 특산이라고 하여 천연기념물(207호)로 지정된 나무인데, 작년에 속리산에 가 보니 다만 늙은 나무 한 그루가 못 학생들의 팔매로 나무를 못 견디게 상해 놓은 것을 보고 이 나무가 미구에 멸종되거나 앓을가 걱정이 되었었다(뒤에 들으니 말라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 1폭포에서 제 3폭포로 가면서 주의해 보니 냇가 여기 저기에 꽤 큰 망개나무 여러 개체를 발견하게 되어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제 1폭포에서 얼마 아니 가서 「도유림사업소 출장소」라는 간판을 붙인 오두막집이 있고 그 옆에 붙은 큰 헛간에는 白炭 6~700俵가 쌓여 있다. 炭夫 말이 그곳서 10리 가량 산 속으로 들어가면 참나무를 주로하고 그 밖의 활엽수도 찍어 솥을 굽는데가 몇곳 있다고 한다. 이 산의 도유림이 4,383정보나 된단니까 벌채와 育林을 합리적으로 잘 한다면 과히 林相을 상하지 않고 제탄사업을 운영하여 民需물자 공급에 이바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一大 奇觀인 이 산의 경승을 파괴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도 당국에서 이승경을 보존하는 전지에서 제탄사업의 규모를 훨씬 줄이던가 아주 중지하기를 권하고 싶다. 石屏山(周王山)은 실로 남한의 장관이다. 석병산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남한의 산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로 그의 등에 업혀서 내를 건너 채집하면서 첫날 찾았던 제1폭포 다리에 다다라 거름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니 바로 옆에 빨간 열매(잎 쌀알만한)가 달린 나무가 서 있

제탄출장소에서 내를 건너 얼마 아니 가서 遠雷와 같은 물소리와 함께 넓은 흰 비단을 펼쳐 놓은 듯 2단으로 된 폭포가 飛流直下가 아니라 급경사진 바위 위를 흘러내린다. 그래서 눈부신 白雪이 넓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美觀을 보여준다. 이것을 제 3폭포 또는 쌍룡폭이라고 한다.

오후 3시경 여관으로 돌아와 점심을 마치고 젊은이 3인은 다시 大典寺 골짜기를 뒤지러 나가고 老夫는 남아서 독수공방을 하자니 하염없이 젊은 시절이 그림기만 하다.

제 5日(7月 26日)은 새벽부터 비가 내린다. 흡수지를 갈아주고 10시경 다시 주왕암을 찾았다. 그곳에 周鑊 전설의 기록이 있다기에 그것을 얻어 보고자 하였으나 주지가 없어 여의치 못하였다. H군의 수고로 고운 꽃 10여종의 원색 사진을 찍고 내를 건너 제 1폭포로 향하노라니 구름이 거치고 해가 난다. 개이러나 보다고 조와했으나 미구에 다시 흐리고 또 비가 온다. 바위 밑에서 30분 가량 있으니 비가 그친다. 또 전진하여 꽃과 山景의 원색사진을 찍으면서 쌍룡폭포에 닿을 무렵에는 또 비가 쏟아진다. 여관에 돌아와 보니 떠나기 전에 넣어 놓았던 흡수지가 다행이도 밥짓는 온돌이라 어지간히 말랐다. 그래서 표본의 젖은 종이를 전부 갈아주고 채집품을 모두 정리하여 내일 떠날 준비를 하였다. 채집품 중에는 1,000여 점의 놀라 말린 식물표본과 그 밖에 강릉에 심은 껌껌이풀, 둥근잎평의비름, 큰평의비름, 기린초등과 또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흙으로 묻쳐 놓은 어린 망개나무 3그루와 부처손 몇포기, 그리고 大典寺 앞에서 주는 기와 조각과 지질을 구명하기 위한 돌 조각 등이 있어서 짐은 부피가 늘었다.

제 6日(7月 27日)은 흐리고 때때로 비가 오다. 아침에 채집품 전부를 다시 정리하여 소 등애다 한바리 잔뜩 실리고 10시에 여관을 떠나 여슬렁 여슬렁 소를 따라 30여리를 걸었다. 갖다가 비가 오면 표본이 젖지나 앓을가 조바심을 하였으나 큰 비는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청송읍까지 30여 리 길에 내를 아홉번이나 건넜다. 청송서 3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만나 30리 거리에 있는 진보라는 장거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90리를 달려 안동에 닿았다. 안동서 몇 시간을 쉬고, 밤 10시차로 일로 서울로 향하였다.

(本協會會長)

〈資 料〉

自然保存과 保護法

權 世 哲



오랜 옛날부터 우리들의 先祖는 文人 詩人 史學家로부터 家庭婦女子에 이르기까지 文獻 詩集 또는 주고받는 詞緣에도 우리 山川을 가리켜 錦繡江山이라 表現하여 왔다. 글자 그대로 비단에 繡를 놓은 것 같다고 풀이한 것이니 이를 보드라도 우리나라의 天然資源이 얼마나 秀麗하였는가를 짐작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줄곧 이러한 自然과 더불어 呼吸하며 살아왔고 自然이 주는 美的 아름다움을 즐기기에 앞서 이를 아끼고 사랑 할 줄 아는 情緒도 길러 왔다. 이와 같이 自然이 우리에게 베푸는 온갖 惠澤과 人間이 自然에 對하여 쏟는 愛情은 단순한 利害關係를 떠나서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自然은 점점 破壞되어 가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注意 깊게 본다면 無慘히 잘리어진 숲이나 파헤쳐진 곳이 荒廢化되고 철새나 텃새를 비롯한 鳥獸類들이 그들의 棲息地가 매달려 國外로 移民을 가고 있음을 그 길목을 지나는 이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先進諸國에서는 그 나 文化水準을 評價하는 尺度를 바로 自然을 아끼고 사랑하는 國民性에 둔다고 한다. 自然을 保存하고 保護함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國民의 슬기를 立證하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悠久한 歷史와 아름다운 우리의 遺産을 물려받았으므로 이를 찾고 가꾸며 保全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슬기로운 國民으로서 神聖한 義務요 榮光이 아닐 수 없다. 人間의 生活環境 改善을 爲하여 建設事業을 하는 사람이든 觀光 登山客이든 우리 모두가 自然을 사랑하며 運動하고 自然과 더불어 觀光하고 自然保存을 留意하며 建設을 하여 文化的 科學的 天然資源의 保存이 이루어 진다면 한층더 아름다운 結晶이 形成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풀 한포기 일지라도 이를 알뜰히 가꾸고 保護하며 自己 혼자 힘으로써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法을 適用하고 活用하여서라도 우리의 錦繡江山을 誠心껏 保存하여 後孫에게 所重히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痛感하여 조금이라도 參考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에 文化財保護法中에서 名勝 天然記念物에 屬하는 部分을 拔萃하여 소개하는 바이다.

우리를 國民 모두가 스스로 自然保護者 되고 管理者가 되며 監視員이 되므로써 우리 秀麗한 祖國江山과 天然資源이 지켜지고 가꾸어져 後孫에 原狀대로 물려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文化財保護法 拔萃

法 第9條에 依하여 指定을 받을 수 있는 名勝 天然記念物

景勝地 動物 植物 鑛物로서 우리나라의 歷史上 藝術上 學術上 또는 觀賞上 價値가 큰 것.

1. 名勝의 指定基準
  - 가. 著名한 建物이 있는 景勝地 또는 苑池나. 花樹 花草 丹楓 또는 鳥獸 魚虫類의 棲息地
  - 다. 著名한 峽谷 海峽 串急流 深淵 瀑布 湖沼 등
  - 라. 著名한 海岸 河岸 島嶼 其地 景勝地
  - 마. 著名한 風景의 展望地點
  - 바. 特色 있는 山岳 丘陵 高原 平原 河川 火山 溫泉地 冷鑛泉地

2. 天然記念物의 指定基準
  - 가. 動·植物
    - ① 韓國特有의 動·植物로서 著名한 것 및 그 棲息地 生長地
    - ② 石灰岩地帶 砂丘 洞窟 乾燥地 濕地 河川 湖沼 瀑布의 沼 溫泉 河口 島嶼 등 特殊地域이나 特殊環境에서 棲息하거나 生成하는 特有한 動·植物 또는 動·植物群 및 그 棲息地 生長地 또는 到來地
    - ③ 珍貴한 動·植物로서 그 保存이 必要한

것 및 그棲息地 生長地

- ④ 韓國特有한 蓄養動物
- ⑤ 學術上 價値가 큰 寺叢 名木 巨樹 老樹 畸型木
- ⑥ 代表的 原始林 代表的 高山植物地帶 또는 珍貴한 森林相
- ⑦ 珍貴한 植物의 自生地
- ⑧ 著名한 動·植物의 分布의 境界가 되는 곳
- ⑨ 有用動·植物의 原產地
- ⑩ 貴重한 動·植物의 遺物發見地 또는 學術上 특히 重要한 標本과 化石

나. 地質 鑛物

- ① 岩石 또는 鑛物의 生成原因을 알 수 있는 狀態의 代表的인 것.
- ② 巨大한 石灰洞 또는 著名한 洞窟
- ③ 特異한 構造로 되어 있는 岩石 또는 著名한 地形
- ④ 學術上 特히 貴重한 標本
- ⑤ 溫泉 및 冷鑛泉

다. 天然保護區域

保護할만한 天然記念物이 豊富한 代表的인 一定한 地域

3. 天然記念物의 保護區域指定基準

가. 動物(蓄養動物에 限한다) 地質鑛物은 그 保護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區域

나. 植物은 立木을 中心으로 하여 半徑 5미터 이상 100미터 以內의 區域

4. 基準의 特例

自然的條件 人爲的條件 其他 特殊한 事情에 依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基準을 加減할 수 있다.

5. 指定에 關한 資料

가. 種別 名稱 數量 所在地 또는 保管場所

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占有者의 住所 姓名

다. 保護區域 保護物 또는 保護物의 保護區域을 설정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그 區域 또는 數量과 所有者 管理者 또는 占有者의 住所 姓名

라. 由來 傳說 및 現狀

마. 材料 品質 構造 形式 크기 其他 形態

바. 寫眞 圖面 錄音 記錄

사. 保護管理上 必要한 制限 또는 禁止에 關

한 事項

아. 其他 必要한 事項

法 第17條 管理方法의 指示

文化公報部長官은 所有者 占有者 또는 保有者에 對하여 景勝地 天然記念物의 管理保護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法 第18條 所有者等の 管理義務

所有者 또는 保有者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文化公報部長官 其他 行政機關의 命令과 指示에 따라 當該天然記念物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이를 管理保護하여야 한다

法 第20條 許可事項

所有者 保有者 管理者 또는 管理團體가 다음

1. 2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된 區域 안에서 動·植物·鑛物을 採取하거나 이를 그 區域外로 搬出하는 行爲 또는 그 採取나 搬出을 다른 사람에게 承認하는 行爲

2. 前號以外의 景勝地나 天然記念物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保護場所 또는 緣故關係가 있는 場所로부터 搬出하는 行爲

許可申請 節次

法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갖추어 文化公報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1. 指定番號 種別 名稱 數量

2. 到來地 生長地 保管場所 또는 緣故關係가 있는 場所

3. 採取 또는 搬出을 必要로 하는 事由

4. 搬出地

5. 採取 또는 搬出 豫定年月日

6. 採取 또는 搬出 方法

7. 다시 搬入한 것인 境遇에는 이에 關한 事項

8. 其他 必要한 事項

法 第25條 補助金

保存上 必要한 다음의 經費에 對하여는 國庫에서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管理, 保護를 爲하여 必要한 經費 다만 所有者가 그 負擔能力이 없거나 그 能力이 貧弱한 境遇에 限한다.



法 第57條 表彰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이 이를 表彰하고 副賞을 授與할 수 있다.

1. 管理保護의 責任이 없는 者로서 努力 또는 財力을 犧牲하여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滅失 盜難 毀損을 防止한 者
2.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保護 및 公開의 責任과 義務에 忠實하며 他的 模範이 된 者

法 第58條의 7. 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存

土木 其他 建設工事로 因하여 文化財가 毀損 滅失 또는 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其他 文化財의 安全保存上 必要한 때에는 그 土木 其他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公報部長官의 指示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그 措置에 必要한 經費는 當該 土木 其他 建設工事의 施行者가 負擔하여야 한다.

法 第64條 史蹟等에의 盜水罪

물을 넘겨 指定 또는 假指定된 史蹟 名勝 또

는 天然記念物의 該當區域이나 保護區域을 侵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 法 第68條 其他의 罪

다음 각號에 該當하는 者는 5年 以下の 懲役

1. 許可없이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그 保管 또는 緣故의 場所나 區域外로 搬出하는 者
2. 許可없이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現狀을 變更하거나 其他 그 管理保存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는 者

法 第69條 其他의 罪

다음 각號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0,000원 以下の 罰金

1.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區域안에서 動物 植物 鑛物을 採取하거나 이를 그 區域外로 搬出하는 行爲 또는 그 採取나 搬出을 다른 사람에게 承認하는 行爲
2.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區域 또는 史蹟, 名勝 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區域안에 施設物 등을 設置하거나 이를 他人에게 承認한 者
3.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動物의 渡來地 繁殖地 棲息地등에 그 生長에 害로운 物質을 流入 또는 撒布 등의 行爲를 한 者

法 第70條 其他의 罪

다음 각號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の 懲役 또는 100,000원 以下の 罰金

1. 正當한 理由없이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權者의 管理行爲를 妨害한 者
2. 正當한 理由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基한 命令에 依한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拒絕 忌避 또는 妨害하거나 虛偽의 資料를 提供한 者
3.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保存의 責任이 있는 者로서 怠慢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當該文化財를 滅失 또는 毀損하게 한 者
4. 이 法에 의한 補助金을 그 交付目的 의의 用途에 使用한 者
5.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保護區域의 界標를 故意로 損壞 移動 除去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그 區域의 境界를 識別할 수 없게 한 者

〈本 協會 事務局長〉

# 閑麗水道의 景觀資源

忠武市를 中心으로

李 昌 福

南海岸地域의 觀光資源 造成에 있어서 中心地의 하나가 忠武市라고 생각된다. 市內에는 忠武公을 모시고 있는 忠烈祠, 鑿樑廟를 비롯하여 洗兵館이 있고 勝利의 바다를 지나서 將軍께서 갑옷을 풀었다고 전하여지는 解甲島를 지나면 거북선 등대앞을 거쳐서 우거진 松林 앞에 자리잡고 있는 制勝堂에 도착한다.

뒷면과 左右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27年生 內外인 것으로 보아 6, 25동란 이후에 자라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신기하게도 소나무가 大部分이고 곰솔은 심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드물다. 솔잎혹파리의 피해로 오래지 않아 이 소나무의 숲도 사라져버릴 것을 생각하니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늙은 나무로서는 느티나무가 들앞에 몇 그루 서있다. 느티나무는 착양묘 뒷면의 斜面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떨 뿐 그리 흔한 종류는 아니다. 마삭덩굴, 줄사철 및 송악등이 이리 저리 기어올라 老木의 운치를 한층 더 품위 있게 꾸며주고 있다. 쓸쓸한 환경에서도 활짝 꽃이 핀 팔손이와 더불어 광나무, 불레나무, 사철나무, 무른나무가 군데 군데 자라고 있는 밑에서 자금우가 빨간 열매를 달고 地面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딴지 떨어진 것인지 후박나무의 어린 苗木이 몇 그루 있었다.

후박나무의 커다란 나무는 찾지 못하였으나 바닷가에 자리 잡은 旅館 뜰에 옮겨 심은 것이 한 그루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근처 어딘가가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을 것이다.

制勝堂 正門 앞에서 동백이 자라고 바로 왼쪽에는 커다란 사스레피나무가 한 그루 있다. 지름이 15cm 정도이고 높이 2m로 자란 이 나무는 이 근처에서는 勿論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속할 것이다. 사스레피나무는 제승당 근처에서 자라는 常綠闊葉樹中 가장 흔한 종류로서 바닷가에서 山腹까지 군데 군데 자라고 있다.

市內에서 忠烈祠 境內로 들어서는 길가에는 늙은 동백나무가 서있다. 후피향나무, 아왜나무 및



勿巾防潮魚付林

돈나무등의 늙은 나무가 外來種인 태산목, 일본젓나무, 목서, 月桂樹등의 老木과 더불어 境內를 꾸미고 있다.

착양묘 앞에는 커다란 가시나무가 두 그루 자라고 있으며 뒷쪽 斜面에는 느티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가시나무 밑에는 종자에서 싹이 트

어린 苗木이 자라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발뿌리에 채여서 그대로 사라진다.

市街地 바로 맞은편에 웃둑 솟아 있는 彌勒峯에는 이 地域에서만 자라고 있는 통영병꽃나무(*Weigela*)와 통영미나리냉이(*Cardamine*)가 있고 山腹에는 高山植物의 하나인 열레지(*Erythronium*)가 자란다.

주위의 植生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여기 저기 남아 있는 植物의 종류로 보아 過去에는 常綠闊葉樹가 상당히 무성하였던 것 같다. 붉가시나무, 가시나무,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후피향나무, 참식나무, 식나무, 팔손이등이 여기 저기서 자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 걸음 나아가

서 저제도와 남해도로 나가면 빗죽이나무, 감탕나무, 다정큼나무, 모밀잣밤나무등이 자라고 아직도 어떤 絶壁에는 팔손이의 野生狀이 남아 있다.

忠武公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 史蹟을 永久히 보전하여 그 偉勳을 기리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義務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史實이 생기던 당시의 분위기를 간직한 環境要素의 保全이라고 본다.

말 없이 사라져 버리는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 풀일지라도 그 중에는 우리들의 先祖께서 그 속에 몸을 움추리고 敵兵의 毒矢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있을것이요 때로는 反對로 적병의 이마를 쓸수 있도록 도와준 나무와 풀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茂盛하였던 풀과 나무는 싸움에 지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唯一한 安息處이었을 것이요 不幸이도 쓰러진 屍體의 피를 빨아올린 나무와 풀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故人과 呼吸을 같이 하던 常綠樹林을 다시 가꾸어 地域의 人 獨特한 環境을 조성하는 것은 故人이 남긴 偉勳을 이어받을 姿勢의 確立이라기 보다도 現代人의 科學的인 思考方式에 비추어 볼 때에 있어서도 漁民의 生計를 도울 수 있는 魚付林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바로 이곳에 있는 南海島의 勿巾防潮魚付林이 이의 좋은 例이며 忠武公께서 몸 바쳐 지키신 이 지역을 삼자루와 호미를 들고 옛모습으로 가꾸는 것은 芻蕘의 달가스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農大 敎授)

## 산에의 향수(鄉愁)

### 수양산인

삼림은 지상 최대의 장식이라고 한다. 산은 이 삼림이란 의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으므로해서 그 위엄을 떨치고 자애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인류는 원래 산림을 발상지로하고 그 자애스러운 품에 안기어 오랫동안 그 소산물을 먹고 그 감화를 받아온 것이다. 인류의 오늘이 있음은 산림의 혜택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요 산림을 빼어놓고는 현대 문명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산림이 황폐하여 빨간 살이 들어 나는대로 국민의 심성도 정비례로 황폐 일로를 걷는 것만 같다. 산악의 의상인 삼림을 빨갱게 베껴 먹은 이 백성은 마치 제 어미의 옷을 베껴 하체를 들어내어 만인이 바라보는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생각이 이에 미치매 장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완전히 사막화 했던 芻蕘의 유트랜드 반도도 달카스 대령 부자의 불타는 애국 충정과 피나는 노력으로 필경 울창한 삼림지대로 변화시키고야 만 것을 본다면 아직 그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은 우리나라 산림은 임정을 강화하여 면밀한 계획 하에 국민의 애립 사상을 고취하고 어린 나무의 보호에 힘쓴다면 수십년 이내에 울창한 삼림으로 육성할 수 있으련만!

소란한 음향과 매연 속에서 시달리는 도시 사람은 옛고향인 산이 그리워 시간과 비용만 마련되면 하이킹, 캠핑, 등산을 위하여 산으로 향한다. 이러한 등산 인구는 해마다 늘어만 간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알프스」 산을 잘 가꾸고 좋은 시설을 해서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필 스위스 뿐이라. 개발된 나라들은 다투어 자연을 보존하고 경관을 가꾸어 관광객을 불러들이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림만 울창하다면야 문자 그대로 금수강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에는 바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있으니 이 바다의 웅장함과 산악의 기묘함과 계곡의 아름다움과 게다가 가을의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과 청냉(淸冷)한 기후 등등은 세계 굴지의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식수절이 닥아오니 부질없이 산에의 향수에 견딜 수가 없다. 이 향수에 어린 꿈이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하다. (20년전 노트에서)

# 漢拏山 國立公園 自然被害狀況 調査

〈自保會·濟州道支部〉

本支部에서는 韓國山岳會의 提報에 따른 協會本部의 調査指示로 1975. 3. 16일 漢拏山 國立公園內의 待避所 施設에 따른 自然被害狀況을 調査(調査班安興燦外 7名)한 結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摘發하고 이에 對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 調査內容

1. 윗세오름 待避所(被害樹木: 구상나무등 稀貴樹種 25本, 高地 1,700미터, 頂上 1km 지점)

윗세오름 南北에는 1,500餘坪에 500餘本の 故死木이 있어 운치높은 景觀을 이루고 있었으며 登山客들의 시선을 끄는 絶景의 自然景觀이었으나 最近 6,7년내에 登山客이 급증하므로써 물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樹木은 떨감으로 잘리게 되어 現在 남아있는 故死木의 數는 불과 數십本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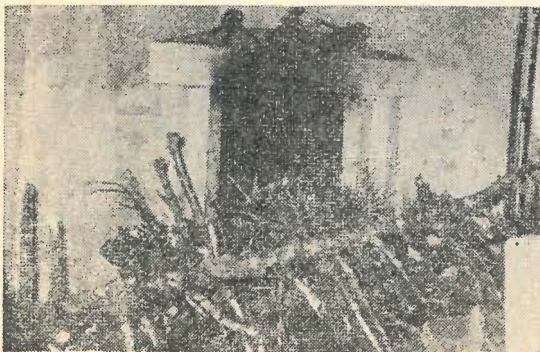
더구나 登山客을 위한 待避所에는 「베치카」 시설이 되어 있어 주위의 故死木을 만구 잘라 빼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放置해 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나마 現存하는 樹木마저도 모두 떨감화하여 이 일대의 自然은 황폐되고 말 것이다.

### 2. 진달래밭 待避所

5,600坪의 넓은 진달래밭에 200餘本の 故死木이 있었으나 거의가 떨감화되고 現在는 불과 30餘本만이 남아 있다(나무 直徑 20~30cm, 울겨울 伐採本數 20餘本).

### 3. 사라악 待避所 부근

오물 처리가 않되어 악취가 심하며 주위 環境이 많이 破壞되어 시급한 保護管理對策이 요청되며,



待避所「베치카」앞에 倒린 나무가 쌓여있다.

이 地域 역시 樹木 被害가 심하여 이대로 放置한다면 몇년 이내에 半徑 40~50m 주위의 樹木이나 自然풍치는 完全히 파괴되고 말 것으로 예측된다.

### 提言

1. 國立公園 管理事務所의 機構를 대폭 擴張하여 순시 관리를 강화하고, 待避所에는 管理員을 고정 배치 할 것.
2. 登山客들의 火木 伐採用具 휴대를 철저히 단속하고, 牧童, 藥草꾼의 入山을 강력히 統制할 것.
3. 山岳地帶 開發은 保護가 곧 開發에 直結되는 것이므로 申증을 기함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 측백나무 新自生地에 對한 調査

〈自保會·慶北支部〉

慶北 安東郡 所在, 측백나무의 새로운 自生地를 現地踏査한 結果, 調査된 自生地狀況은 다음과 같다.

1. 所在地: 慶北 安東郡 一圓

2. 所在地狀況

西쪽은 幅 約 60m의 眉川이 南에서 北으로 흐르고 있고 그 東쪽 언덕을 石築으로 쌓아 올려 幅 8m의 國道가 開通되어 있는데 天然의 絶壁이 이 國道 가설 工事로 因하여 저변 約 50m, 높이 約 100m의 삼각형 絶壁을 이루고 있다.

측백나무는 이 垂直에 가까운 絶壁의 바위틈에 간신히 뿌리를 박고 自生하고 있어 일대 奇觀을 이루고 있다.

3. 樹齡 및 數量

추정 樹齡 約 200年의 크고 작은 측백나무 300餘株가 自生하고 있으며 岩石의 落下로 뿌리가 노출되어 故死한 것도 간혹 눈에 뜨인다.

4. 管理狀況

本 自生地 一帶가 私有地이므로 現在 地主가 管理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接近이 어려운 斷崖絶壁이어서 比較的 잘 保護되고 있기는 하나 岩石의 落下에 따라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樹型이 盆裁나 정원수로 쓰기에 알맞게 되어 있어서 도벌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 提言

이곳 측백나무 自生地는 그 規模에 있어서나 學術研究上의 價値로 보아서 天然記念物로 指定 保護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思料되어 이에 對한 시급한 조치가 要望된다.

## 自然保存 啓蒙講演會 講演要旨

### 春川(江原道支部) 講演會

本協會에서는 江原道支部(支部長:孫繼天)主管으로 74. 11. 27. 하오 2시 春川의 道立文化館에서 自然保存啓蒙講演會를 開催하였다.

朴鍾星知事를 비롯한 市內 重要機關長과 會員, 市民, 學生等 600여명의 踴중이 모인 이날 講演會에서 李德鳳博士(本協會會長)는 「自然과 人間生活」, 李敏載 博士(本協會理事·서울大 文理大 教授)는 「地球는 급격히 變하고 있다.」라는 主題의 講演을 통해 自然保存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編輯者〉

## 自然과 人間生活

李 德 鳳

自然이란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으나 크게는 動物·植物을 포함하는 生物界와 鑛物, 岩石, 물, 空氣等 地球를 形成하고 있는 無生物界를 합쳐서 自然界라고 통칭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식물계에 25만종, 동물계에 1백만종이 서식하고 있다. 동물계는 그중 70만종이 배뚜기 등 몸이작아 섭취와 이동이 쉬운 곤충으로 되어 있다. 지구는 10분의 7이 물로 싸여있다. 태양광선은 생물 무생물계를 죄어 생명유지를 하는데 調和를 이루게 하고 달은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 작용을 일으켜 복잡미묘한 지구의 생태를 펼친다.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童蒙先習에는 五倫의 존엄성을 내 세웠다. 오메가포인트說을 발표한 「프랑스」의 「페야르」神父는 지구의 生成연대를 20억만년으로 人間의 지구출현은 겨우 100만년에 지나지 못하지만 현재는 크게 번식하여 人類는 단 1種으로서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다.

인간의 두뇌에 의한 자연계의 지배는 사람이 무한히 향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인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 인간과 주위의 환경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평화를 유지케 된다. 만일 이들이 적절한 관

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어느 한쪽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중당에 가서는 다른 한쪽까지 모두 멸망하고 마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자. 자연환경은 자꾸 악화되어가고 이로 인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제는 절멸 또는 쇠퇴되어가는 예가 허다하다. 시골의 여름밤에 반딧불을 볼 수 없고 등산길에 흔히보던 구절초등 식물도 갈수록 구경하기 어렵다. 모두 공해 때문이다. 더구나 인구는 나날이 급증하여 도시는 팽대되고 산업시설도 많아져 이제 우리는 도시의 폐수, 매연 등에 휩싸여 오늘을 살아야 하게 되었다. 이대로 10~20년을 갔을 때 지구의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늘어만가는 도시 환경의 악화로 인해 사람들은 병명도 알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러한 공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이 자연을 금수강산으로 원상 복구하여 우리들 자신이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없이 물려주어야 할 強하고 重한 責任을 짊어지고 있다 하겠다.

이와같은 자연 보존이라는 문제는 우리 자신의 생존과도 직결된 것인만큼 전 국민이 이를 자각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만이 비로소 그 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공해방지의 제 1보는 자연을 깨뜨리지 않는데 있다. 자연보존의 책임은 지금까지 피해만 주어진 인류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자연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호 육성 하는데 중



하에 環境問題特別委員會(SCOOP)를 두어서 3년 동안에 여러가지 答申안을 만들도록 했다. 그래서 이 SCOOP 會議는 1972年 9월에 「오스트랄리아」의 「캄베라」에서 最終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급속히 變해가는 地球의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스톡홀름」에서의 環境會議로서 發展해 갔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地球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其中에는 空氣의 問題도 있을 것이고 水質의 變化問題, 소음 기타 自動車의 「모터라이제이션」關係, 人口폭발,

점을 두고 자연보존을 위한 강력한 규제법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처벌 규정에 앞서 자연보호 이념을 몸에 지니고 생활화하는 습성을 지닐때 인류의 위기는 한결음더 늦춰질 것이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은 세계적 공해에 비할 때 아직도 싱싱한 것이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 국민된 긍지를 살려 자연애호 사상을 한층더 높여 훼손되지 않게 힘써야겠다.

〈本協會會長〉

## 地球는 급격히 變하고 있다

李 敏 載

地球는 뭔가 모르게 급격히 變해가고 있다. 地球가 우리의 生存이 不可能해질만큼 變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살곳은 과연 어디냐 하는 問題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니랄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國際聯合에서 國際科學總聯盟理事會(ICSU)라 하는 團體에 자문을 물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世界가 變化하는 原因을 따져 보면 各地域에 있어서의 급격스러운 工業化問題 또는 都市化 그리고 全體 機械化하는 문제 때문에 二次大戰後에 급작스러운 世界의 自然 파괴와 人口增加 等等이 原因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급작스럽게 추진되어 왔던 것이라고 본다.

國際聯合에서 자문을 받은 ICSU에서는 그 산

거기에 따른 식량의 부족 等等의 여러가지 問題가 여기에 수반되지만 여기서는 空氣問題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금 地球를 둘러싸고 있는 大氣圈의 大氣의 造成은 산소가 21%, 질소 78%, 탄산가스 0.03%, 기타로 되어 있다. 오늘의 大氣圈이 언제부터 이러한 造成이 形成되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수십억년전 地球가 처음 생겼을 무렵의 大氣의 造成은 最近에 地球科學에 의해서 알려진 「데이터」를 보면 現在에 0.03%밖에 안되는 탄산가스가 기원시대에는 91%였고 질소가 6.4%, 유화수소가 2% 등등으로 여기서는 산소의 존재를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막대한 量의 탄산가스는 어디로 갔으며, 또한 現在의 산소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現在의 發達된 工業體系를 보더라도 大氣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잡아서 탄산가스를 탄수화물로 만들고 산소를 빼내는 工程은 아직까지도 植物以外에는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이 막대한 일을 해 내것은 植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綠色植物이 地球上에 나타난 것이 始生代의 後期라고 하니 지금부터 約 6億年 내지 10億年前이라고 보는데 이때로부터 綠色植物은 계속적으로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이 地球上에 91%나 存在하던 탄산가스를 조금씩 산소로 바꾸어 오늘의 大氣造成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오늘날 0.03%의 탄산가스와

22%의 산소가 大氣中에 있다고 하니 現在 地球上에서 植物에 의해 固定된 탄소량을 우선 계산해보면 1년에  $2.6 \times 10^{10}$ 톤의 탄소가 陸上植物에 의해 固定되어가고, 또 海洋植物인 「프랭크톤」 따위에 의해서 固定된 것이  $1.8 \times 10^{10}$ 톤, 합해서  $4.4 \times 10^{10}$ 톤이라는 탄소가 地球上에서 固定되어 가는데 이것을 탄산가스에 의한 것으로 환산해보면  $1.6 \times 10^{11}$ 톤의 탄산가스가 이 地球上에서 지금 消費되고 있다. 한편 植物이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내뿜는 산소량은 1년에  $1.2 \times 10^{11}$ 톤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植物에 의해서 들어가는 탄산가스량과 나오는 산소량은 다소간 산소량이 적으나 대체로 平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植物에 의해서 섭취된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는가? 植物體內로 들어간 탄산가스는 有機化合物로 되고 그中 일부가 呼吸에 의해서 다시 탄산가스로 되어 나간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막대한 양이 植物體를 구성하지만 이것은 다시 사람이나 동물의 호흡기질로 쓰여지거나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탄산가스로 배출되게 되어 결국 地球上의 탄산가스와 산소의 양은 거의 一定한 平衡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地球가 이러한 상태로만 계속된다면 요즘과 같이 環境問題가 世界的인 問題로 대두될 理由가 없겠으나 最近 30여년 동안에 世界各國은 저마다 工業化를 서두르게 되어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를 과도히 使用하므로써 탄산가스량의 과도한 배출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現在 世界는 심각한 環境問題에 봉착하게 되었다.

印度의 有名한 「닥터·바바」라는 사람의 강연록에 보면 過去, 人類가 주 1년부터 1850年 동안에 使用한 純「에너지」가 9Q 인데 1851년부터 1950年까지의 100年동안에 10Q를 소비했고, 1951년부터 2050年까지의 100年간에는 무려 30Q~40Q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라고 했다(「에너지」 1Q는 330억톤의 석탄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더구나 이 30~40Q라는 막대한 「에너지」는 모두가 化石연료로부터 얻게 되므로 이제 地球는 이 化石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산가스와 아황산가스로 덮히게 될 危機에 놓이게 된 것이다.

東京 教育大學의 「미야코」 教授의 論文에 의하면 現在 地球를 둘러싸고 있는 탄산가스 全體량의

25%가 人類의 「에너지」 획득 과정에서 배출된 것이고, 30年 後에는 全량의 60%가, 또 40年 後에는 現在의 大氣中の 탄산가스 全량만큼의 탄산가스가 배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40年 後에 地球上의 탄산가스량이 현재의 2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간에 植物이 흡수하는 量보다는 훨씬 많은 量의 탄산가스가 大氣中에 포함되게 될 것은 확실하다.

現在 우리 人體는 大氣 속의 0.03%의 탄산가스 그것이 점유하는 분압과 「벨런스」를 잡고 그 압력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분압의 「벨런스」가 깨어질 경우 우리 人體는 급격히 여러가지의 호흡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증가하게 될 이 탄산가스를 처리해 줄 방법은 무엇인가?

탄산가스가 많으니 이것을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만들어 지구를 회복시켜야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나 그 工場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료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얘기라고 밖에 할 수 없겠고 결국은 綠色植物의 光合成 過程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地球上의 現實은 어떠한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人口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生活圈의 확장, 대규모 産業施設의 건설 등등에 의해서 山林은 무자비하게 황폐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탄산가스와 산소의 「벨런스」를 생각한다면 이 山林이야말로 人口增加에 정비례해서 增加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地球의 環境상태를 유지하는데 극히 困難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와는 반대로 탄산가스를 내뿜는 工場을 세우기 위하여 山林을 벌채하는 등의 역현상이 世界的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번 「스톡홀름」會議에서도 이 自然을 이 이상 더 파괴해서는 안되겠다고 결의하고 各國間에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環境保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했다.

萬物의 靈長인 우리 人間은 地球에서의 영원한 生을 누리고 子孫한테도 이 地球를 원상태로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歷史의 한토막에서 地球를 파괴함으로써 우리 後孫들의 生活를 곤란하게 만든다면 이는 실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하겠다.

地球의 保存. 特히 지금 급격히 「언벨런스」가 되어가는 大氣의 造成을 現在대로 유지시키기-위한 가장 효율적인 方法은 주위의 綠化를 급속히 이루어 주는 길 밖에 없을 것이므로 生物의 生存圈 人類의 生存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工業化가 進展되는 만큼 정비해하여 綠地帶를 進展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原則은 世界 어느나라 어느 곳 이진 例外일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山林이 많은 江原道의 경우는 이 江原道의 山林이 全國을 「카버」해 줄 우리나라의 산소 供給源이라는 자부를 가지고 道民 스스로가 이것을 잘 保存해 주셔야 되겠다는 점을 強調하고 싶다.

〈서울대 自然大 教授〉

서울·경기지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2동 산56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물학과 내  
(지부장: 강영선 박사)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강원일보사 내  
(지부장: 손계천 사장)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박물관 내  
(지부장: 조성진 관장)

충남지부

충남 대전시 충남일보사 내  
(지부장: 남정섭 사장)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전주 문화방송 주식회사 내  
(지부장: 노시영 사장)

전남지부

전남 광주시 광주 시립박물관 내  
(지부장: 허 연 관장)

제주지부

제주시 제주은행 내  
(지부장: 김봉학 은행장)

경북지부

경북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문리과학대학 생물학과 내  
(지부장: 양인석 박사)

환영 합니다

사단법인 韓國自然保存協會는

우리의 祖國, 그 수려한 自然을 찾고  
지키고 가꾸기 위한 國民의 會입니다.

급속한 사회의 발전중에 자칫하면 잊  
기쉬운 自然과 環境保存에 관심있는 國民  
여러분의 入會를 환영합니다.

會員에게는 회지 “自然保存”과 각종  
刊行物을 드립니다.

入會願書는 本協會 各 市道支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願字는 成均館大學校 教授 嚴泰植 博士의 揮毫입니다.

발행인 李 德 鳳

편집인 金 昌 煥

발행처 社團 韓國自然保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 2 洞山 1  
林業試驗場內 電話 2894

연락처 :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산1

임업시험장 내

(회장: 이덕봉 박사)

〈비매품〉